

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

Issue 9, 2022 Q1

본 보고서(Korea Corporate Pension Update)는 다양한 출처에 공개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 퇴직연금 사업자, 그리고 퇴직연금 펀드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음. 보고서 하단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서술하였음.

퇴직연금 시장 (2021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 분석 자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DB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95.2%, 4.8%로 대부분의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투자 비중은 증권에서 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은행 및 증권과 달리 보험의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투자 비중은 2020년 대비 감소하였음.
- 전체 퇴직연금 자산 중 DB 자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20년 61.0% → 2021년 58.8%).

DC

- 투자 상품의 비중은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각 78.4%, 21.6%로 여전히 대부분 자산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으나, 원리금비보장형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21년 6월 이후 원리금비보장형 투자 비중이 전체의 20%를 상회하고 있음.
- 업권별 운용 규모는 2020년 대비 증권의 자산 비중은 2.3%p 증가한 반면, 타 업권은 감소하였음.

Figure 01. 퇴직연금 시장 요약

(단위: 10억원, %)

운용 방법	자산 규모			총 합	비중
	DB	DC	IRP		
원리금보장형	163,367	57,895	30,544	251,806	86.3%
원리금비보장형	8,158	15,960	15,948	40,066	13.7%
총 합	171,525	73,855	46,492	291,872	100%
비중	58.8%	25.3%	15.9%	100%	

DB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66,954	3,547	70,501	41.1%
증권	33,790	3,339	37,129	21.6%
생명보험	50,728	1,265	51,993	30.3%
화재보험	11,895	7	11,902	6.9%
총 합	163,367	8,158	171,525	100%
비중	95.2%	4.8%	100%	

DC ~ 업권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총 합	비중
은행	41,805	6,344	48,149	65.2%
증권	6,142	7,646	13,788	18.7%
생명보험	8,343	1,824	10,167	13.8%
화재보험	1,605	146	1,751	2.4%
총 합	57,895	15,960	73,855	100%
비중	78.4%	21.6%	100%	

퇴직연금 사업자 – DB (2021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 분석 자료는, 각 업권별(은행/보험/증권) DB 및 DC 각각에 대한 운용관리 자산규모 상위 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거 수익률 및 자산규모 등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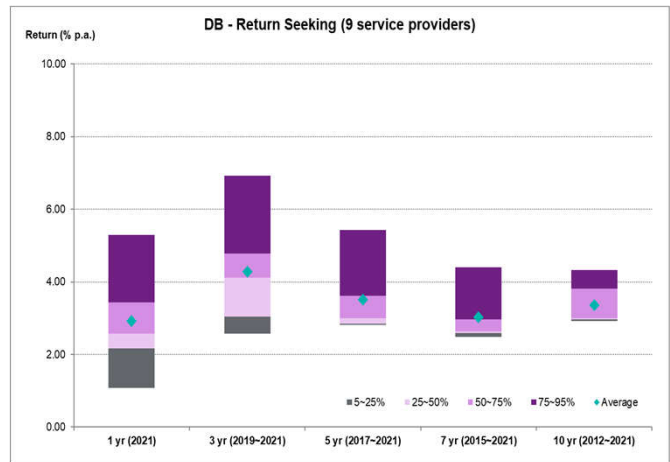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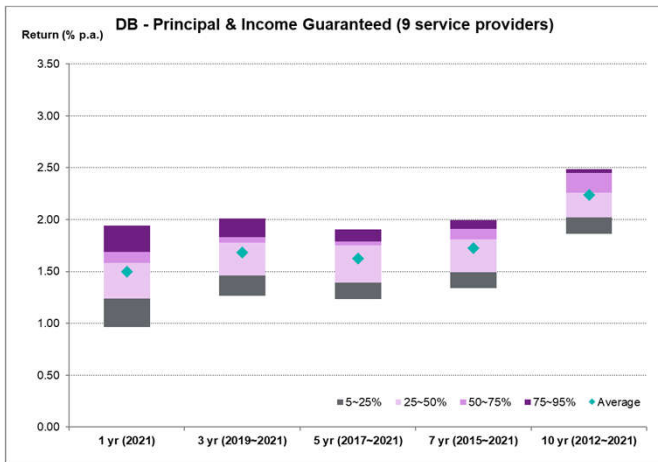
- 제공 이율의 하락으로 9개 사업자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020년 대비 하락(2020년 12월 1.78% → 2021년 12월 1.50%)하였으며, IBK기업은행(-0.47%p), 신한은행(-0.42%p), 미래에셋증권(-0.34%p)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단기 예금 판매가 많은 은행은 보험 및 증권업 사업자 대비 수익률 열세 보이며, 차이는 30~110bp에 이름.
-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제공 상품 이율 높아짐에 따라, 2022년 수익률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1년 하반기 시장 둔화에 따라 9개 사업자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020년 대비 하락(2020년 12월 5.42% → 2021년 12월 2.93%)하였음.
- 보험의 장/단기 수익률이 타 업권 대비 높은 편이며, 특히 삼성생명은 모든 기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임. 단, 삼성생명의 원리금비보장형 투자 비중은 1% 수준으로 9개 사업자 중 가장 낮은 편임.

Figure 02. DB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신한은행	11,908	1.1	1.4	1.3	1.4	2.0	1,080	2.2	3.0	3.0	2.8	3.0
하나은행	10,189	1.2	1.5	1.4	1.5	2.0	919	3.4	3.1	2.8	2.6	2.9
IBK기업은행	9,548	0.9	1.2	1.2	1.3	1.8	266	2.6	4.3	3.0	2.6	2.9
현대차증권	13,476	2.0	2.0	1.9	1.9	2.5	396	1.6	4.1	2.9	2.6	3.0
미래에셋증권	5,674	1.5	1.8	1.8	1.9	2.4	795	2.5	3.0	2.8	2.4	3.0
한국투자증권	4,477	1.6	1.8	1.8	1.9	2.5	850	2.8	4.8	3.6	3.0	3.8
삼성생명	32,158	1.7	1.8	1.8	1.8	2.2	442	5.5	7.0	5.8	5.0	4.6
교보생명	5,747	1.6	1.7	1.6	1.7	2.3	470	5.0	6.8	4.8	3.6	4.0
미래에셋생명	4,075	1.9	2.0	1.9	2.0	2.5	322	0.8	2.3	2.8	2.6	3.1



퇴직연금 사업자 – DC (2021년 12월말 기준)

원리금보장형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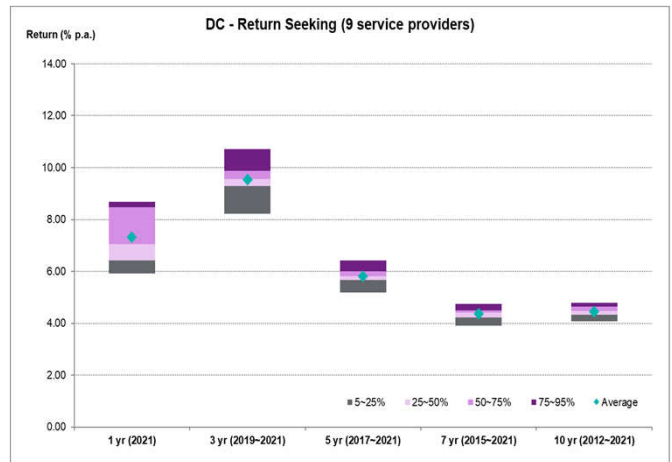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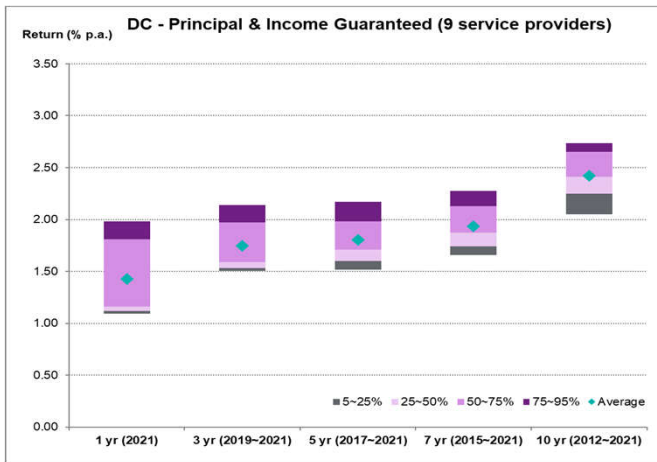
- 9개 사업자 모두 1년 수익률이 2020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은 은행(-0.51%p) 및 증권(-0.36%p)에서 보험(-0.15%p) 보다 크게 나타남.
- 은행/저축은행 예금 상품의 제공 이율 하락에 따라 은행 및 증권 사업자의 수익률 경쟁력이 자사 원리금보장형 보험 상품 판매를 주로 하는 보험 사업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 2022년 금리 인상으로 제공 상품 이율 높아짐에 따라, 2022년 수익률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원리금비보장형 포트폴리오

- 2021년 하반기 시장 둔화에 따라 9개 사업자 모두 1년 수익률이 2020년 및 2021년 6월 말 대비 하락하였음.
- 연중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9개 사업자 모두에서 2020년 12월 대비 원리금비보장형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원리금비보장형 자산 투자 비중 또한 상승하였음. 특히, 증권업 상위 3개 사업자는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함.
- DB와 달리 업권별 장/단기 수익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Figure 03. DC – ‘원리금보장형’ 및 ‘원리금비보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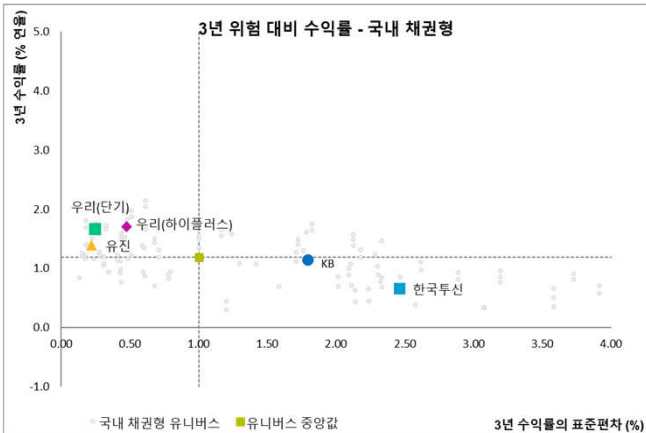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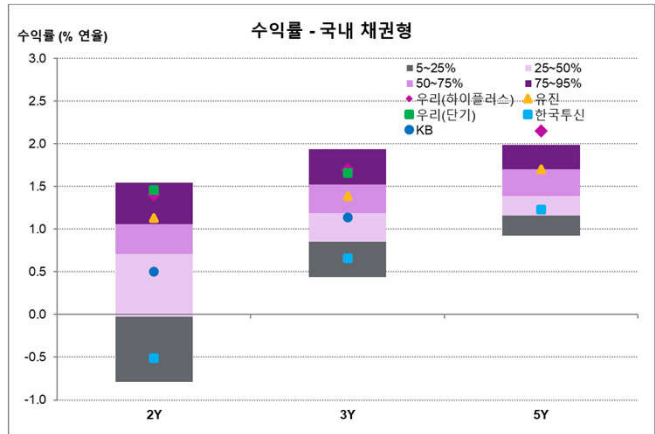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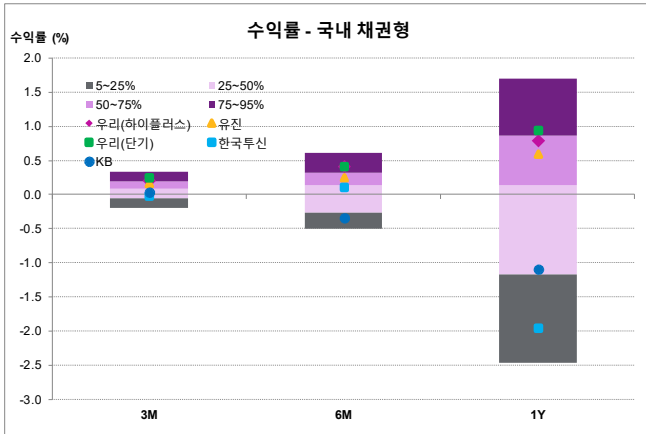
퇴직연금 사업자	원리금보장형(Principal & Income Guaranteed)						원리금비보장형(Return Seeking)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자산규모 (단위:10억)	수익률 (%)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1년 (2021)	3년 (’19-’21)	5년 (’17-’21)	7년 (’15-’21)	10년 (’12-’21)
KB국민은행	8,350	1.1	1.5	1.5	1.7	2.2	1,656	6.0	7.8	5.0	3.8	4.1
신한은행	7,642	1.2	1.6	1.6	1.8	2.3	1,747	7.0	8.9	5.9	4.5	4.3
IBK기업은행	8,654	1.1	1.5	1.5	1.7	2.3	654	6.4	9.4	5.7	4.4	4.1
미래에셋증권	2,286	1.2	1.6	1.7	1.9	2.4	3,840	8.7	10.8	6.6	4.9	4.8
삼성증권	894	1.1	1.5	1.7	1.7	1.9	1,212	8.7	9.7	5.8	4.5	4.3
한국투자증권	940	1.5	1.8	1.9	2.1	2.7	1,065	7.8	9.6	5.5	4.1	4.5
삼성생명	4,271	2.0	2.1	2.1	2.1	2.6	759	7.0	9.3	5.7	4.2	4.5
교보생명	1,916	1.8	2.0	2.0	2.1	2.7	597	8.5	10.6	6.2	4.4	4.8
미래에셋생명	786	2.0	2.2	2.2	2.4	2.8	326	5.9	9.9	6.0	4.6	4.6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형 (2021년 12월말 기준)

Figure 04.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58	0.33	0.61	1.70	1.54	1.94	1.98
상위 25%	16	0.20	0.32	0.86	1.06	1.52	1.70
중앙값	2	0.08	0.14	0.13	0.71	1.19	1.39
하위 25%	0.2	-0.06	-0.27	-1.17	-0.03	0.86	1.16
하위 5%	0.0	-0.19	-0.51	-2.47	-0.79	0.44	0.92
총 데이터의 수 (개)	224	221	216	203	148	127	65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우리하이플러스채권증권투자자산탁(채권)ClassC-P	410	0.19	0.41	0.78	1.40	1.70	2.15
유진첨피언단기채증권투자자산탁(채권) ClassC-P2	233	0.15	0.23	0.58	1.13	1.39	1.70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자산탁(채권)ClassC-P	226	0.24	0.41	0.94	1.46	1.66	-
한국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탁(국공채)(C)	200	-0.03	0.10	-1.96	-0.51	0.66	1.23
KB스타막강국공채증권투자자산탁(채권)C-퇴직클래스	119	0.03	-0.35	-1.10	0.50	1.14	-



퇴직연금 펀드 분석 자료는, 한국펀드평가에서 제공하는 국내 채권형, 채권혼합형(채권 비중 60% 이상) 및 주식형 펀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펀드 유형

- 2021년 하반기 동안 신규 출시와 유입에 힘입어 2021년 말에는 자산 규모 10억 이상의 펀드 수가 224개로 증가함.
- 8월, 11월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상과 전구간에 걸친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2021년 하반기 국내 채권형 펀드들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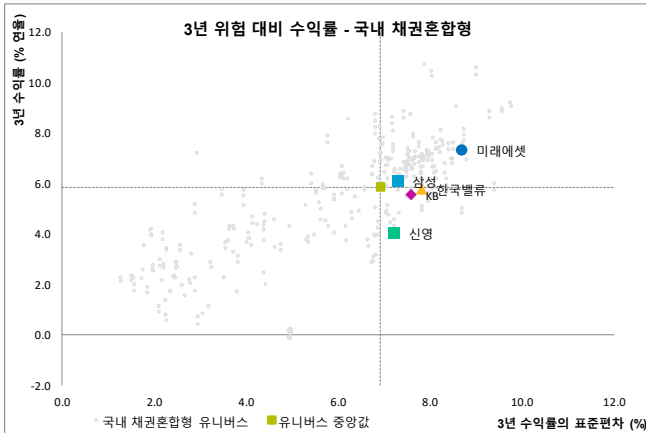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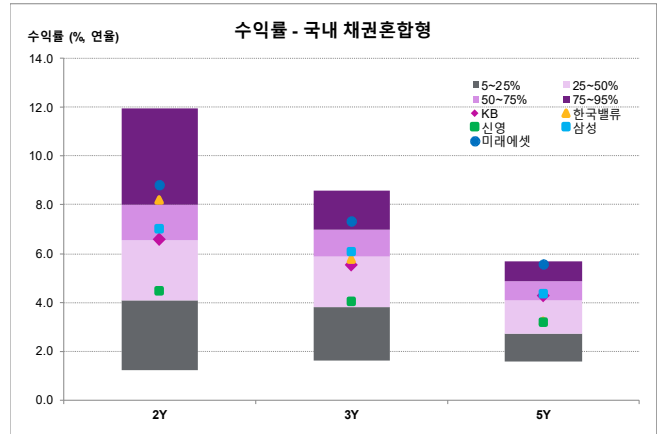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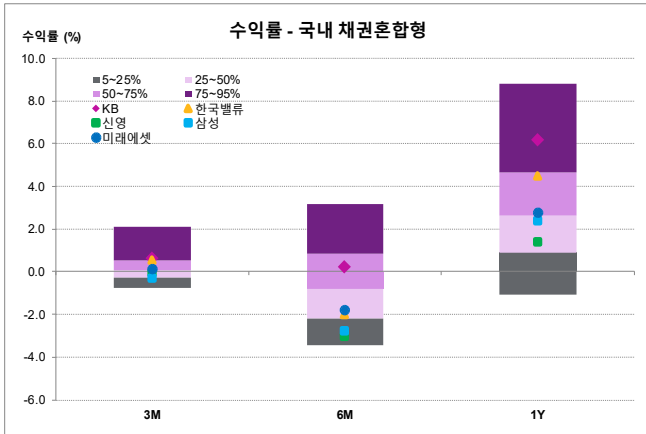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2021년 2분기 말 4위였던 우리단기채권증권 펀드가 큰 유입에 힘입어 3위로 상승함.
- 상위 5개 펀드 자산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금리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단기채펀드의 성과가 비교적 우위를 보임.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채권혼합형 (2021년 12월말 기준)

Figure 05. 퇴직연금 - 국내 채권혼합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41	2.09	3.14	8.82	11.91	8.58	5.66
상위 25%	7	0.54	0.82	4.63	7.95	6.99	4.82
중앙값	2	0.08	-0.83	2.54	6.49	5.85	4.01
하위 25%	0.3	-0.26	-2.17	0.85	4.11	3.88	2.72
하위 5%	0.0	-0.77	-3.43	-1.27	1.24	1.65	1.58
총 데이터의 수 (개)	454	445	431	401	360	344	211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KB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C	1,121	0.63	0.21	6.17	6.60	5.54	4.28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472	0.54	-2.03	4.49	8.19	5.77	3.21
신영퇴직연금배당40증권투자자산탁(채권혼합)C형	440	-0.04	-3.06	1.40	4.46	4.03	3.18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C	268	-0.31	-2.76	2.38	7.01	6.07	4.35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투자자산탁 1(채권혼합-재간접형)종류C	185	0.13	-1.81	2.78	8.80	7.32	5.59



펀드 유형

- 2021년 하반기 동안 신규 출시와 유입에 힘입어 2021년 말에는 자산 규모 10억 이상의 펀드 수가 454개로 증가함.
- 2021년 하반기 국내주식 시장이 약 11%의 조정을 보이면서 채권혼합형 펀드들의 수익률(중앙값 기준)도 손실 구간에 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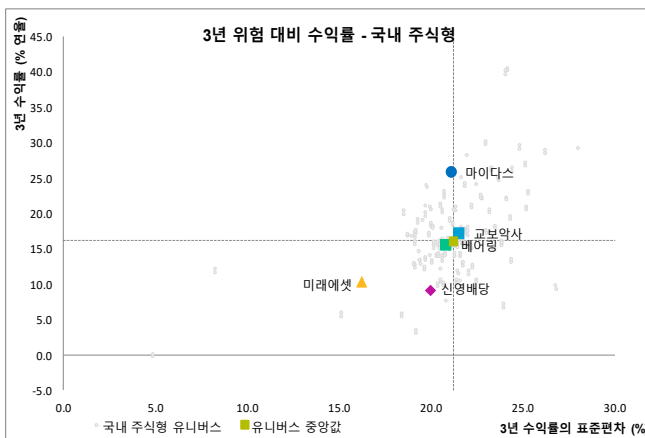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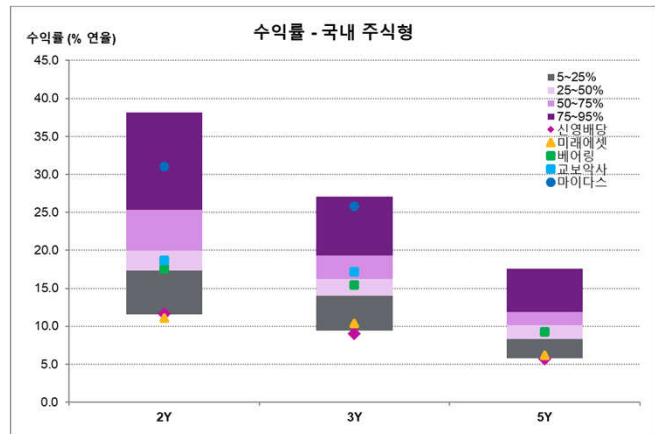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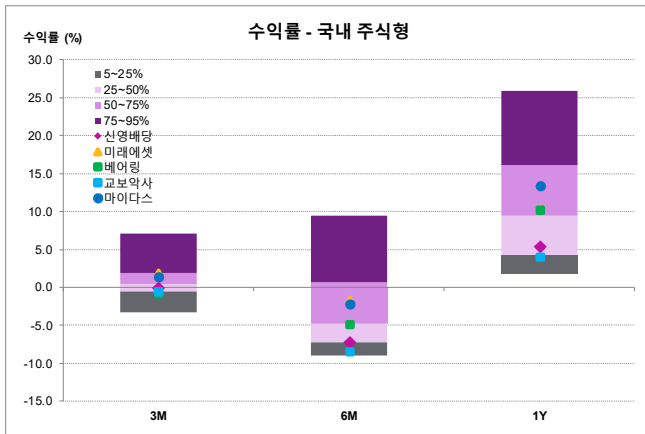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운용 자산규모 상위 5개 펀드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총 자산규모는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2021년 하반기는 중소형주에 비해 대형주의 성과가 저조한 모습을 보였고, KB를 제외한 4개의 펀드 모두 하반기 수익률이 유형 평균 중앙값에 미달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

퇴직연금 펀드 - 국내 주식형 (2021년 12월말 기준)

Figure 06. 퇴직연금 - 국내 주식형 펀드

요약	자산 규모 (단위: 10억)	수익률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자산규모 및 수익률의 범위							
상위 5%	27	7.09	9.45	25.84	38.13	27.10	17.54
상위 25%	5	1.91	0.64	16.14	25.36	19.31	11.86
중앙값	0.7	0.43	-4.74	9.48	19.91	16.20	10.13
하위 25%	0.1	-0.59	-7.29	4.28	17.35	14.02	8.32
하위 5%	0.0	-3.25	-8.92	1.78	11.53	9.38	5.75
총 데이터의 수 (개)	381	375	372	340	268	246	84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펀드명	자산 규모 (단위: 10억)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C형	185	-0.12	-7.26	5.43	11.65	9.00	5.74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종류C	164	1.86	-1.73	10.27	11.11	10.35	6.15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ClassC-P2	107	-0.78	-4.90	10.14	17.60	15.47	9.29
교보약사파워인덱스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C-Pe	104	-0.59	-8.43	3.99	18.67	17.16	-
마이더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주식)C-Pe2	83	1.41	-2.22	13.39	31.01	25.80	-



펀드 유형

- 2021년 하반기 동안 신규 출시와 유입에 힘입어 2021년 말에는 자산 규모 10억 이상의 펀드 수가 381개로 증가함.
- 2021년 하반기는 KOSPI가 11% 수준의 조정, KOSDAQ은 보합을 보이는 등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차별을 보이며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 펀드들이 손실을 기록함.

운용 자산 상위 5개 펀드

- 운용 자산규모 기준 상위 5개 펀드의 자산규모는 2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자산규모 상위 3개 펀드가 모두 배당주식형 펀드로 이뤄짐.
- 마이더스책임투자 펀드가 신규 진입한 가운데 삼성퇴직연금인덱스 펀드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액티브 펀드의 약진이 나타남.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변경 사항

2022년 4월 14일 시행 개정 법령 주요 사항

DB 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적립부족 미해소 벌칙

-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IPS작성 필요



- 시행령 시행 이전 재정검증결과를 통보 받았더라도 **2022년 내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 필요**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납입**하여야 함. 해소 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3년까지 행정지도 후, 2024년부터 부과 예정

퇴직금 제도: 퇴직금 지급 IRP계좌로 의무화

- 퇴직일시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좌(IRP)로 지급 의무화 (2022.4.14부)**

2022년 7월 12일 시행 예정 개정 법령 주요 사항

DC 제도: 사전지정운용방법 - 규약 반영 필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 사전지정운용방법:**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 유형** 혹은 **다음에 해당되는 원리금비보장 유형** 중 하나 이상의 유형을 포함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에 승인 받고, 가입자에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해야함.



- 적용 대상: DC 전체 가입자.**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택한 후 운용지시 하지 않은 경우*

*1)최초 가입 이후 2주 이내 운용지시하지 않은 가입자
 2) 기운용상품 만료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여, 재운용지시를 통보했음에도 2주 이내 운용지시하지 않은 가입자

DC 운용 회사 고려사항

- 사전지정운용방법 설정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DC규약에 반영 필요 (시행일 이후 1년 이내)** 단, 세부사항 및 사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확정하지 않아, 해당 부분이 확정된 후 반영 가능함.
- 사업자간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차별화가 예상되어, 현재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평가** 혹은 단일 사업자 선정한 경우, **사업자 추가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함.



Disclaimer

This document was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 substitute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In particular, its contents are not intended by Willis Towers Watson to be construed as the provision of investment,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r recommendations of any kind, or to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 to do or to refrain from doing anything. As such, this document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investment or other financial decisions and no such decisions should be taken on the basis of its contents without seeking specific advice.

This document is based on information available to Willis Towers Watson at the date of issue, and takes no account of subsequent developments after that date. In addition, past performance is not indicative of future results. In producing this document Willis Towers Watson has relied upon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ertain data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This document may not be reproduced or distributed to any other party, whether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illis Towers Watson's prior written permission,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In the absence of its express written permission to the contrary, Willis Towers Watson and its affiliates and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nd employees accept no responsibility and will not be liable for any consequences howsoever arising from any use of or reliance on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including any opinions expressed herein.

© 2022 WTW. All rights reserved.

About WTW

At WTW (NASDAQ: WTW), we provide data-driven, insight-led solutions in the areas of people, risk and capital. Leveraging the global view and local expertise of our colleagues serving 140 countries and markets, we help you sharpen your strategy, enhance organizational resilience, motivate your workforce and maximize performance. Work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you, we uncover opportunities for sustainable success – and provide perspective that moves you. Learn more at wtwco.com.

Contact Details

신윤현, CFA, FRM, CAIA
Head of Investments, Korea
+82.2.3430.2550
Andrew.shin@willistowerswatson.com

안정선, FSA, FIAK
Head of Retirement, Korea
+82.2.3430.2561
Chongson.an@willistowerswatson.com